

익산시, 관광 활성화 주력

포스트코로나 대비 동부권 중심 기반시설 확충 본격 미륵사지·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 건립사업 등 순조

익산시가 관광산업 활성화 정책을 강화하는 등 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한 다양한 극복 정책을 펼친다.

지난 22일 익산시에 따르면 세계문화유산이 있는 동부권 지역을 중심으로 기반시설 조성을 본격화해 관광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등 포스트코로나 정책을 추진한다.

우선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전체 6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올해 국비 23억 원이 추가 확보됐으며 연말까지 전체 사업을 마무리해 국립익산박물관을 연계한 관광 활성화에 주력한다. 현재 전통문화체험관과 관광안내소 등은 6월 준공을 앞두고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며 주차장과 화장실 등도 올 하반기에 완공된다.

세계유산과 백제왕도 핵심유적을 한 곳에서 살펴볼 수 있는 세계유산 탐방 거점센터 건립사업도 행정절차가 진

행되고 있다.

총 사업비 215억원이 투입된 이번 사업은 올해 국비 확보로 첫 발을 내딛게 됐다. 현재 공유재산 심의와 토지보상 등 각종 행정절차가 추진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탐방센터 건립과 부지조성에 대한 설계공모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를 토대로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공사가 착공될 예정이다. 센터에는 백제유적 종합안내관과 문화재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교육하고 체험할 수 있는 역사관 전망대, 교육장, 주민참여공간 가상체험관과 함께 방문객 편의 증진을 위해 유적 간 연계 환승시설 등이 들어선다.

인근에 위치한 왕궁보석테마 대표 관광지 일원에도 기반시설이 새롭게 조성되고 있다.

전북도와 함께 추진되고 있는 이번 사업은 기존에 조성된 공룡테마공원

과 연계해 체험형 관광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곳에는 오는 2024년까지 연차별로 가족단위 관람객들이 모험을 즐길 수 있는 주제별 코스체험 복합놀이시설 등이 순차적으로 건립된다.

보석아트벤처와 하늘자연거길 등 다양한 주제로 나눠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되며 기존 노후 시설 정비와 관람객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해 자연 속에서 즐길 수 있는 문화체험 공간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토대로 익산시는 세계유산과 왕궁보석테마 대표 관광지를 연계한 관광활성화로 500만 관광객이 찾는 명품도시 조성에 속도를 높인다.

시의 관광정책 강화는 코로나19로 얼어붙은 관광지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관광산업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현을 시장은 “금마와 왕궁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관광 기반시설이 조성되고 있다”며 “인공되어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 추진

동부권지역 대상 수요 조사

군산시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하는 '2021년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공모사업을 추진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군산시에 따르면 융복합지원사업은 동일한 장소에 2종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동시에 설치해 에너지원간 융합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요금을 줄이는 사업으로 설비의 최대 80% 정도를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해주는 제도다.

이에 군산시는 동부권지역(임피면, 서수면, 대야면, 개정면, 성신면, 나포면)을 대상으로 2021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 신청을 위한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지원사업은 동부권 지역 주택, 건물 등을 소유한 주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해당 면 주민센터나 마을

이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한국에너지공단에 공모사업 신청서를 오는 6월 12일까지 제출하며, 공모 결과는 공단의 공개평가 및 현장평가 등을 거쳐 오는 10월 중 최종 확정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사업은 중장기 계획에 의해 군산시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에너지 복지해택 사업이니 만큼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참여하는 에너지 복지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모두가 행복한 자립도시 군산시를 만들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전년도 서남부지역(옥구읍, 옥산면, 회현면, 옥도면, 옥서면, 소룡동, 미성동)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주민 537세대에 총 사업비 40억 원을 투입하여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지열)를 설치 중에 있다.

/군산=김판근기자

군산시, 2020년 군산형 유망 강소기업 5개사 선정

군산시는 지난 22일 시청 면담실에서 지역 신성장동력과 건강한 일자리 창출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2020년 군산형 유망 강소기업 5개사에 인증서를 수여했다.

지난 3월 4일부터 신청서를 접수받아 서류 및 현장평가, 발표 및 종합평가 2단계의 심층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된 유망 강소기업은 ▲대왕제지공업(주) ▲발산공업 ▲수립산업(주) ▲(주)카라 ▲(주)태평양이다.

군산형 유망 강소기업 육성 지원사업은 성장 가능성과 기술 경쟁력이 높은 기업을 발굴하여 글로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지난해 도내 지자체 중 처음으로 10개사를 선정했고, 올해에는 5개사 선정에 28개사가 지원을 신청해 약 6: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올해 선정된 군산형 유망 강소기업은 선정일로부터 3년간 매년 3천만원의 사업비와 함께 전담 PM(Project Manager)을 통해 기업의 중장기성장전략수립과 기술혁신 활동, 판로지원, 경영 및 품질혁신 지원 등 기업 성장에 필요한 맞춤형 패키지를 제공받게 되며, 기 선정된 강소 기업과 지역 연구기관 간 우수 기술사예 공유, R&D 기반의 제품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연계 협력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강영준 군산시장은 “기술혁신과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의 우수한 유망 강소기업에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원으로 성장을 유도해 향후일자리 창출 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소·중경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근기자

익산시 보건소, 오늘부터 진료·검진업무 재개

익산시 보건소는 생활 속 거리두기에 발맞추어 그동안 코로나19 방역과 선별 진료소 운영을 위해 중단했던 각종 보건 업무를 재개하고 25일부터 진료와 검진업무를 다시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건소 업무 중단으로 인해 많은 불편을 초래했던 내과 진료를 비롯해 지역 주민들의 경제 활동과 밀접한 건강 진단 결과(수구 보건검) 발급과 각종 검진, 예방 접종 업무를 먼저 재개한다. 이를 제외한 기타 보건업무는 사업 대상자와 업무 내용을 살펴 운영 시기를 결정하기로 했다.

다만 코로나19 환자가 집단 발생하

는 등 예기치 못한 감염병 확산이 있을 경우 업무 축소 등 조정이 있을 수 있다.

한편 선별진료소, 역학조사와 상담실, 방사선 촬영 등 검사 부스는 코로나 19 방역 활동과 함께 계속 운영하며, 보건소에 일반 진료등을 위해 방문 시에 별도의 동선으로 안내 받아 출입하게 된다. 또한 보건소 방문시 열(37.5도 이상)이 있거나 개인마스크 미착용시 출입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당분간 방문 인원인 많이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어 가능한 방문 전 전화로 예약 문의를 당부하였다.

/익산=장양원기자

지역 소식통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 군산시 추진상황 보고

군산시는 지난 22일 윤동욱 부시장 주재로 상반기 목표달성 및 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집행이 부진한 주요사업들을 점검하고, 각 사업의 집행상황 문제점 진단 및 대안책을 강구하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군산시는 지난 1월부터 매월 시장·부시장 주재로 신속집행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매주 간부회의 시 부서별 집행실적 점검 및 애로사항 청취, 성과공유 등 신속집행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향후 군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종 공사의 △선금 지급 활성화 △간접입찰 △계약심사 및 적격심사 기간단축 등 재정 신속집행 지원 적극 활용 및 선결제·선구매를 통한 소비·투자부진 집행을 최대한 확대하여 신속집행 실적 제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군산=김판근기자

상수도요금 감면대상 확대

군산시가 저소득층 및 3명이 상 다자녀 가정에 대해 상수도요금 감면을 확대 시행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군산시는 저소득층 및 3명 이상 다자녀 가정에 대해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오는 7월 부과분부터 상수도요금 감면을 확대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주민등록번호상 3명 이상의 자녀가 19세 미만인 가정이 감면대상에 추가됐다.

상수도요금 감면신청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수급증명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인증명서를,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은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군산=김판근기자

익산시 · 전북창업공유지원단 업무협약

일자리센터 6월 중 개소식

일자리 관련 사업 추진키로

익산시는 고용노동부의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중 하나인 ‘익산시 고용안정 일자리센터(이하 일자리센터)’ 구축 및 운영을 본격화 하기 위해 (사)전북창업공유지원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일자리센터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사)전북창업공유지원단(이사장 이효선)은 현재 중앙부처, 전북도, 익산시의 각종 일자리 사업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는 일자리 사업 분야에 최적화된 전문기관이다.

일자리센터는 익산상공회의소 1층에 자리잡고 오는 6월 중에 개소식을 한 후 본격적으로 업무에 돌입할 예정이다.

시 일자리정책과장이 센터장을 겸임하며, 총 19명의 인원으로 ▲기업지원팀 ▲취업연계팀으로 구성 운영되며 구인구직 상담, 동행 면접, 기업 컨설팅 등 일자리 관련 각종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이를 토대로 고용서비스를 한



익산시는 고용노동부의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중 하나인 ‘익산시 고용안정 일자리센터(이하 일자리센터)’ 구축 및 운영을 본격화 하기 위해 (사)전북창업공유지원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곳에 집적시킨 종합일자리 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5년간 2,000개 이상의 일자리 발굴 및 제공을 목표로 구직자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수요자 중심의 양질의 일자리를 연계할 위해 ▲일자리발굴단(5명)과 ▲이동상담 인력(5명)을 운영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고용현장 모니터링과 산업동향 현지조사를 통해 적재적소 맞춤형 일자리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현을 시장은 (사)전북창업공유지원단 이효선 이사장에게 “코로나 19등으로 특히 침체된 지역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방문, 구직상담 등을 통해 신속하고 원활한 일자리 연계 및 양질의 일자리 발굴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